

활동지로 배우는 실학

실학박물관 청소년용 활동지



학교:

학년:

이름:

실학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학박물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마재마을에 있어요.
 조선후기 실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연구하고,
 전시·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실학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실학(實學)’이란 ‘허학(虛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조선후기(17세기~19세기 전반)의 개혁적·
 실천적 학풍을 가리킵니다. 고전을 재해석하여 현재적
 실천방안을 모색했으며, 제도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육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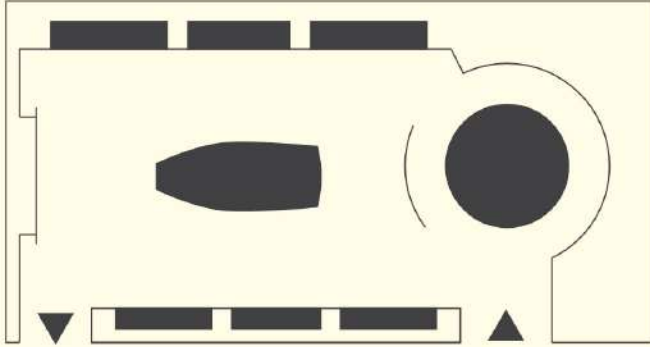


김석주 선생님

*실학자 김육 선생님과 그의 손자인 김석주 선생님의 초상이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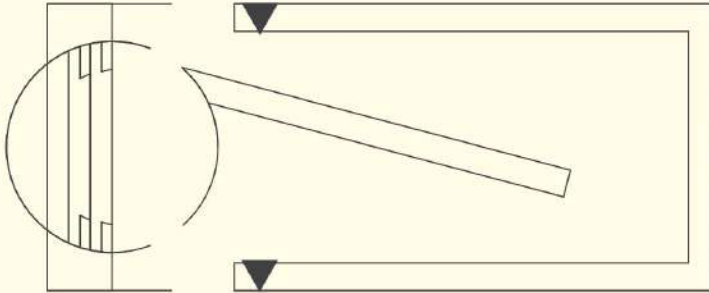
전시실 소개

실학박물관 전시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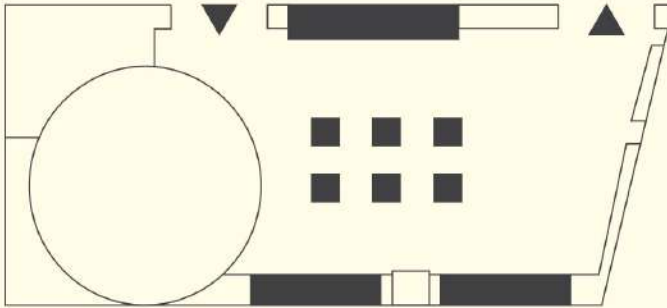
제1전시실

실학의 형성



제2전시실

실학의 전개



제3전시실

실학과 과학

박물관 전시 유물에는 유물을 설명하는 네임택(이름표)이 있어요.



- ① 유물명
- ② 한자명
- ③ 영문명
- ④ 작가명
- ⑤ 제작년도
- ⑥ 제작방식
- ⑦ 유물설명

실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나요?

실학의 형성

조선을 세운 지 200년이 지나자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6세기 유럽은 해상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17세기 중국 대륙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었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의 충격을 수습하고 국가 제도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후기에 나타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두루 모아 편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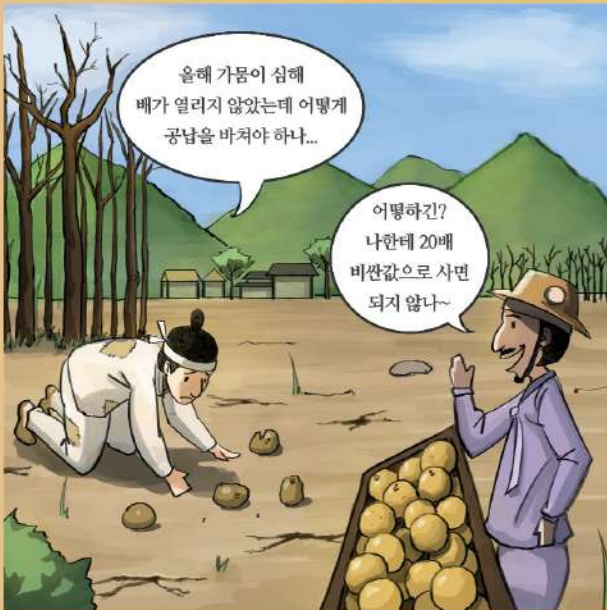
1. 세계적으로 왕래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세 차례나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 이수광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아 문화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동남아와 유럽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을 소개했어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조선후기에 나온 여러 백과사전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백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나라의 재정을 넉넉하게

조세제도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해마다 지역 특산물인 '공물'을 거두는 제도가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아래와 같이 공물을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하고, 쌀이 귀한 지방은 베(옷감)나 돈으로 내게 했으며, 땅을 가진만큼 차등을 두자, 백성의 부담은 줄어들고 나라의 재정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공납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김육 선생님이 개혁한 제도를



법이라고 합니다.

3. 이 제도는 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서민이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조선후기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는 여러 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한글소설 읽기였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의 독서가 주목됩니다. 소설의 수요가 증가하자 당시 관에서 필요로 한 책을 인쇄하던 업자들이 한글소설을 판각으로 새겨 대량으로 책을 공급하였습니다. 한글소설은 사회 비판의식을 담고 있어 백성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글소설 조용전

4. 위와 같이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발간한 책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정기적인 시장인 장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에 들어 전국 1천여 곳에 5일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상인으로 보부상과 객주가 출현하였습니다. 점포를 갖추어 고정된 장소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정주상인은 서울과 개성의 시전에만 있었으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평양, 수원, 통영 등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상평통보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동전입니다. 상평은 항상



을 유지해야한다는 '상시평준'의 준말입니다.

6. 위 설명에서 붓짐장수, 등짐장수를 포괄하는 단어로, *정주상인과 반대되는 행상에 해당하는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는?



*정주상인이란 조선시대 정부가 도성 안에 건축한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는 상인

7. 다음 사진 속 동전의 가운데 있는 구멍의 쓰임새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국가제도 개혁론을 내놓다

조선시대 학문의 주류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만 받들며 다른 학문은 배척하고, 의리명분과 도덕만 강조하여 제도와 민생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제도를 개혁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자들이 등장했어요.

8. 다음 실학자들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각 토지개혁론을 내놓았습니다. 주장한 사람과 제도를 알맞게 완성해 보세요.

	주장한 제도 내용	주장한 사람	주장한 제도
①	자영농 육성을 위해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여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		
②	소농 보호를 위해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입전으로 정하여 매매를 금지하자.		
③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금하자.		
④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고 수확한 곡물은 마을 사람들이 일한 날 수에 따라 분배하자.		

*복수 선택 가능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여전제

한전제

균전제

외부 세계를 살피고, 문물을 받아들이다

연행사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북경)을 다녀온 사신을 말합니다.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청나라 초기에 조선은 연행사를 1년에 네 번 정도 보내다가, 청나라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1644년부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보냈고, 그밖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정한 시간은 정하지 않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와의 외교활동을 통해 청나라를 비롯한 외부세계의 지식과 문물을 도입하였습니다.

9. 연행록은 청나라에 다녀 온 사신이 남긴 기록물로, 당시 변화한 청나라의 모습과 이를 지켜본 조선 사신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행록의 저자와 저서를 맞게 이어보세요.



김창업



홍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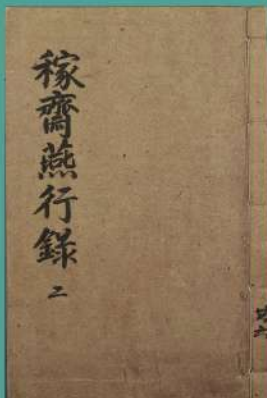


박지원

노가재연행록

열하일기

을병연행록



대표적인 실학자를 알아보나요?

실학의 전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학은 학파로 발전했습니다. 경세치용파(중농학파)는 실용의 입장에서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토지 분배, 농업 기술, 신분 제도 등 나라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용후생파(중상학파)는 생산수단, 문물제도와 기구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사구시파(고증학)는 ‘사실을 밝혀 진리를 추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학문 연구에서 사료 등의 증거와 이를 통한 고증을 중요시했습니다.

경세치용파

성호 이익(1681~1763)은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였는데, 경전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산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들을 ‘성호학파’라고 합니다. 성호는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천주교에 관해서는 유교를 보완하는 정도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여러 문물과 지식을 정리한 『성호사설』이 유명합니다.

10. 성호 이익은 ‘좋은 스승을 만나려거든



를 즐겨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인 자신의 학문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을 꾸짖었으며,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자득(自得)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호사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실학박물관이 위치한 마재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선 제 22대 왕 정조 때 관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훗날 강진에서의 유배생활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이들과 함께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경세유표』와, 지방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한 『목민심서』가 유명합니다.

11. 다산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만들 때 () () () 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고, 덕분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도르래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것으로 서양 선교사가 서양 기계 지식을 중국어로 소개한 과학서인 『기기도설』을 참고하였다고 해요.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이용후생파

담헌 홍대용(1731~1783)은 혼천의를 만들었으며, 집에 《농수각》이라는 천문관측소를 가지고 있던 천문학자였습니다. 청나라 여행에 다녀오며 보고 느낀 것을 한문본 『담헌연기』와 국문본 『을병연행록』으로 남긴 문인이었으며, 가야금과 양금(洋琴)을 연주하는 예술가였습니다. 또 그의 자연관과 과학사상을 알 수 있는 『의산문답』을 지어 당대 인간 중심주의와 중국 중심주의 등의 생각을 비판하였습니다.

12. 담헌 홍대용의 저서 『의산문답』에는 두 인물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인물인 두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산문답

연암 박지원(1737~1805)은 1780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절단에 포함되어 중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이 저서에서 청나라 통치 사정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소개하며 고루한 생각을 각성시켰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지배층인 양반을 풍자한 한문소설 『호질』과 『허생전』이 들어있어요.

13.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특히 나라가 발전하려면 신속한 물자의 유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 로고에도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사구사파

추사 김정희(1786~1856)는 그림과 글씨로 유명합니다. 여러 서체들을 본받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시켰어요. 또한 북한산에 서 있는 비석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탐구한 성과였지요.

14. 추사 김정희는 자신이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답례로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주었습니다. '세한'이란 '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 () ()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세한도에 그려진 나무는 무엇일까요?

- ① 대나무 ② 소나무 ③ 참나무 ④ 은행나무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이사주당(1739~1821)은 세계 최초로 태교 관련 전문서를 남겨 태교의 중요성을 알린 조선시대 여성학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의 경서를 두루 읽었으며, 성품과 덕행을 겸비한 인물로 유교적 남녀관이 팽배하여 여성이 학문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 지식인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가 쓴 태교 지침서 () () () ()는 훗날 아들인 유희가 10편으로 나누어 주를 달고 해석한 재편집본으로, 내용은 크게 태교의 이치, 효능, 필요성, 방법, 중요성, 당위성, 경계, 비유, 옛 선조들의 사례,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십 년이 어머니가 임신하여 열 달 기르는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평생교육에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 이사주당이 1800년에 지은 태교 지침서로 1932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번역 출간되어 최근에도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빙허각(1759~1824)은 여성 실학자로서, 『태교신기』를 지은 외숙모 이사주당과 『언문지』를 지은 외사촌 유희, 『해동농서』를 지은 시아버지 서호수와 『임원경제지』를 지은 시동생 서유구 등 실학자 집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학 총서인 『규합총서』를 썼는데, ‘규합’이란 여성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당시 일상생활 담당자인 여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글로 쓰였으며, 음식 조리, 옷 만드는 법, 발을 갈고 가꾸는 법, 태교와 육아법 등 일상생활에 요긴한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정약용의 가족사랑

16.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유배) 생활을 할 때, 학연과 학유 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로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가족간의 사랑, 선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남에게 베푸는 삶의 가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 등 두 아들과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삶의 가치관이 담겨있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의 부인 홍씨가 보내온 빛 바랜 붉은 치마를 잘라 만들어 '노을빛 치마로 만든 첩'이라는 은유적인 뜻에서 ()()()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17. 내가 만약 귀양(유배)중인 정약용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정약용이 되어 두 아들에게 당부의 편지를 적어봅시다.

18. 정약용이 귀양갈 때 헤어진 어린 딸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자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애뜻한 마음을 담아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하얗게 핀 매화 가지 위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으로,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과 집안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 그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3전시실

조선후기 과학과 지리를 알아보아요!

실학과 과학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천문과 지리는 숭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며 실측(實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의 전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개통헌의



‘아스트로라베’ 혹은 ‘혼개통헌의’라고 불리는 이 천문기기는 하늘에 관한 정보를 집적해 놓은 기구로, 이슬람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시간을 관측하는 데 이용한 기구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용했지요. 아스트로라베는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유금(1741~1788)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었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었답니다.

19.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생활의 편익을 위해 무엇을 만들었을 것 같을 지 생각해 보세요.

신곤여만국전도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곤여만국전도>를 1708년 조선 왕실에서 다시 그렸어요. 그동안 많은 조선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며 중심에 중국이 위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지도를 실학박물관에서 2011년 원래 크기로 다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지

15. 태교산기
16. 학포전
18. 매화변역제도
10. 물기
11. 가웅기
12. 학자, 천문
13. 수례
14. ② 조난부

8. ① 반계 유형원-군전제 ② 석호 이익-한전제
- ③ 연암 박지원-한전제 ④ 다산 정약용-여전제
9. 긴차면-노가재면-영동
10. 동문-영동-영동
11. 동문-영동-영동
12. 동문-영동-영동
13. 동문-영동-영동
14. 동문-영동-영동

1. 지음부
2. 대울
4. 반간물
5. 풍운
6. 보물산

마재마을 그림지도



발행 실학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본 활동지의 저작권은 실학박물관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